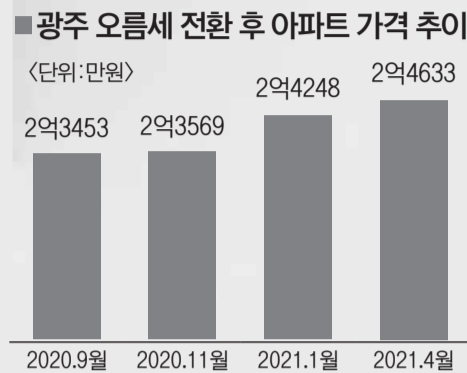


규제에도 계속 오르는 광주·전남 집값

광주 아파트 평균 가격 2억4633만원...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 지속 1년 새 4.83%·1135만원 올라...광산구 6.24%·1423만원 최다 상승 조정대상 전남 여수 전주보다 0.1% 상승...평균 가격 11개월째 상승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을 앞두고 이른바 '절세 매물'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등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7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오르면서 전주(0.1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그 중에서도 북구는 0.32%가 오르면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남구 0.15%, 광산구 0.14%, 동구 0.12%, 서구 0.06% 순이었다. 특히 광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7월 첫째

주(6일) 이후 최근까지 무려 46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 2억3453만원이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0월 2억3481만원→11월 2억3569만원→12월 2억4037만원→올 1월 2억4248만원→2월 2억4377만원→3월 2억4485만원→4월 2억4633만원 등 꾸준히 올랐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2억3498만원)과 비교해서는 광주의 집값이 평균 1135만원(4.83%) 오른 셈이다. 각 자치구 별로 1년 새 집값 상승률을 보면 ▲광산구 2억2804만원→2억4227만원(6.24%·1423만원 ↑) ▲동구 2억4697만원→2억6012만원(5.32%·1315만원



1) ▲남구 3억2070만원→3억3753만원(5.25%·1683만원 ↑) ▲북구 1억8748만원→1억9606만원(4.58%·858만원 ↑) ▲서구 2억5189만원→2억5963만원(3.07%·774만원 ↑) 등 순이었다.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셋째 주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오르면서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운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도 전주(0.10%)보다 상승폭을 키워 0.14% 올랐고,

순천도 전주(0.04)보다 두배 오른 0.08%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양은 0.06% 오르면서 전주(0.08%)보다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전남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더니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억5839만원이던 집값은 7월 1억5890만원→10월 1억6064만원→12월 1억6212만원→올 2월 1억6272만원→4월 1억6320만원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1년 전(1억5798만원)보다는 3.30%(522만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강화하면서 수요를 억눌렀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올라가는 추세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대선 이슈가 부각되면 개발 호재 발표와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 같다"며 "다음달 세금부담이 커지기 전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전력, 올해 첫 '사회적 가치 위원회'

안전경영 강화 논의

한국전력은 20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첫 '사회적 가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구현정책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 사회적 가치 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구성됐다.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사내 위원 9명과 박기호 좋은일터연구소장 비롯한 사외 위원 5명 등 총 14명으로 꾸러졌다. 올해 위원장은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이 맡는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 가치 구현정책의 방향 설정', '추진과제 실적 평가와 피드백', '발전 방안 제안' 등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전의 '2021년도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공유했다. 사외위원장 김두현 충북대 교수의 '도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소개하며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빛으로 여는 캠프'를 내걸고 5대 핵심가치, 20대 전략과제, 130개 실행과제를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으로 세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 연도대상 전국 최다 수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서홍·오른쪽 네번째)와 농협생명보험 전남지역총국(총국장 송대범·맨 왼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 수상자 최다 배출을 기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사무소 부문 11개·개인 34명 배출

NH농협생명보험 전남지역총국이 '2020년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에서 전국 최다 수상 실적을 거뒀다. 농협생명보험 전남총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11개 농·축협, 개인 부문 34명이 전남에서 배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무소는 완도농협, 소안농협, 목포무안신안축협 등 7곳이다. 노화농협, 청산농협, 삼호농협, 봉산농협 등 4개 사무소는 우수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선미 목포무안신안축협 지점장이 대상을 수상하고, 류경미 선진농협 과장(금상) 등 총 34명이 수상자에 선정됐다. 개인 부문 시상식은 21일 여수 소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완도농협은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완도 소안농협은 4년 연속 1위, 목포무안신안축협은 개인연도대상 최다배출 등의 실적을 거뒀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는 '전국 최고 지역본부', 농협생명 전남총국에는 '전국 최고 지역총국'을 기념하는 감사패와 우승기가 주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여름철 식품 안전·위생 집중 관리

8월31일까지 진행

㈜광주신세계는 오는 8월31일까지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중독 고위험 품목 10개는 판매되지 않는다. 육회, 육회비빔밥, 생갯잎김치, 양념계장, 간장계장, 새우장, 전복장, 콩국물, 조각 수박, 거피말떡이 해당한다. 김밥 속 계란지단과 익히지 않은 1차 패류(전복·조개 등), 빙수나 음료에 사용하는 식용얼음 사용도 제한한다. 유제품, 축산물, 생선회, 조각 과일,

샌드위치 등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스템) 품목들은 판매 온도(0-10도)를 준수하며 특별 관리된다. 광주신세계는 개인 위생과 판매 시간 준수 등을 상시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광주신세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실험실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 관리품목과 시기별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식품이나 변질 우려가 큰 식품 등 완제품은 견본을 수거해 5가지 미생물 실험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군균, 황색포상구균 등 검출에 대한 식중독 세균 검사도 식재료, 조리도구, 조리환경 위생 등 식중독 검사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집마련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인기...가입자 42만명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가 42만명, 예금액은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 목돈 마련까지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164명에서 올해는 3월까지 3만5305명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